

발 간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환경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길던 폭염에 태풍 볼라벤과 덴빈까지 왔던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길고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이런 예측하기 힘든 날씨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고 생각하니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학회는 지난 7월 20일 제110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국제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박람회의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었으며, 우리 학회는 박람회를 기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환경보전’이라는 주제 하에 박윤훈, 석종현 고문님의 기조발제 외에 해양환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다양한 내용의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해양생태계와 해양자원의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진행해 준 연구이사님들, 사회, 발표 및 토론을 해 주신 분들 그리고 여러모로 지원을 해 주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박람회 조직위원회, 전남대, 순천대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환경법연구’ 제34권 제2호는 이광윤 교수의 “ÉTUDE PRÉLIMINAIRE POUR LE PROJET DE LA CONVENTION MONDIAL SUR LE PAYSAGE(세계경관협정안을 위한 사전적 연구)”의 2편의 학술대회 발표논문과 에너지법제, 항공기 소음 피해, 빗공해방지법, 잠재적 오염원인자의 환경책임 등 6편의 다양한 환경법 논문들이 게재되었습니다. 육고를 보내주신 투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문 환경 분야의 수준 높은 논문들이 투고되어 우리 학회지의 지평을 넓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는 9월 7일부터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매 4년마다 개최하는 환경 회의로서 환경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다양한 환경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 학회는 그 중 「기후변화」 세션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2차 환경피해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9월 7일 위센터 삼다홀에서 개최하며, 국내외의 저명한 환경법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시고 학술적 교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법연구의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서도 논문심사를 꼼꼼히 해주시는 논문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안식년을 맞아 해외에 계시면서도 편집을 잘 챙겨주시는 이은기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원고 모집에서 발간까지에 갖은 수고를 마다 않는 출판이사님 및 출판간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원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31.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조태제